문턱 낮은 병원, 인천지부 복십자의원

글ㅁ박연숙(본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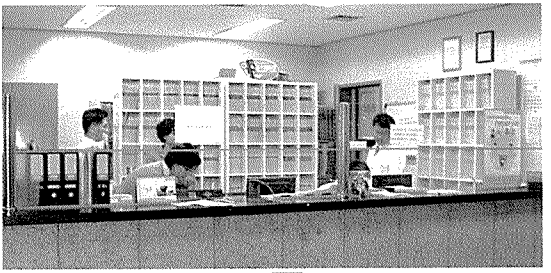
다제약제내성과 같이 최근 결핵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결핵이란 병은 지금보다 더 양지로 끌어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핵이란 병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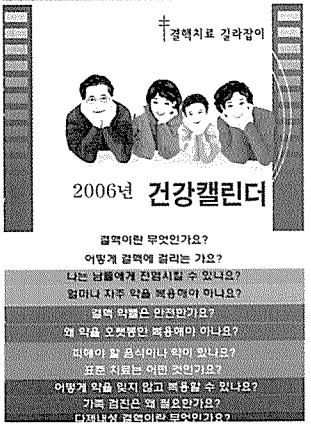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복십자의원을 통한 결핵전문 치료와 더불어 결핵퇴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왼쪽사진 :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건물의 정면 모습. 환절기를 맞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 장의순 사무국장, 복십자의원 권오우 원장을 비롯한 인천지부 직원들이 「보건세계」 촬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추운 날씨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결핵과 관련된 기사가 부쩍 많아진다. 아마도 결핵이 빈곤과 관련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결핵은 '빈곤'과 더불어 '무관심'의 산물이다. 우리가 흔히 변형된 형태의 결핵이라고 말하는 다제내성결핵이 바로 그런 경우다. 치료도 까다롭고 무엇보다도 환자를 힘들게 하는 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결핵이라는 병을 더 많이 알려야 함을 역설한다. 대한결핵협회는 각지부가 주축이 되어 결핵퇴치 및 홍보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이다.

1984년 4월, 대한결핵협회 지부로서는 조금 늦게 출발한 인천광역시지부는 설립과 함께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결핵퇴치와 지역보건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후 전문적인 결핵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0년 복십자의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결핵전문 치료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위 사진 : 복십자의원 입구.
아래 사진 : 결핵 홍보를 위해 지부에서 자체 제작한 2006년도 건강캘린더.

보다 가깝고 친근한 병원

여러모로 인천지부 복십자의원은 '가까운' 병원이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주안역 등에서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다. 두 번째,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는 복십자의원 진료사업을 비롯해 학생종합검진, 소아성인병검진, 사업장 건강검진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네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병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복십자의원에서는 결핵 이외에도 호흡기질환, 내과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차츰 '가까운' 진료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꼭 결핵이 아니어도 치료를 위해 복십자의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효율적인 이합집산, 지부 활성화의 원동력

인천지부는 업무는 관리과, 검사과의 두개 부서와 복십자의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부에 비해 인원이 많지 않지만, 각종 건강검진업무와 연말의 씰 업무, 병원진료 등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업무분담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느냐가 지부 운영의 관건이다. 최근에는 검사과의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등 오래된 건물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눈빛만 보아도 안다'는 말처럼, 오랜 시간 손발 맞춰 일해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조성된 편안한 업무분위기는 인천지부가 결핵퇴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협회 직원들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핵퇴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는 그들의 조력자이자, 친구이며, 결핵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